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500원
현재주가(7.29) 6,46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5,663.24
52주 최고/최저(원)	9,730/5,670
시가총액(십억원)	630.9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97,667.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52.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
외국인지분율(%)	11.24
주요주주 지분율(%)	
넥센 외 2인	69.18
브이아이피자산운용	5.0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394.3	3,563.8
영업이익(십억원)	194.9	222.8
순이익(십억원)	159.3	173.0
EPS(원)	1,526	1,657
BPS(원)	21,144	22,76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847.9	3,189.6	3,412.6	3,574.0
영업이익	172.1	170.3	179.7	199.5
세전이익	169.8	198.2	179.8	209.5
순이익	126.4	150.8	116.6	158.1
EPS	1,213	1,448	1,120	1,517
증감율	22.90	19.37	(22.65)	35.45
PER	4.95	5.20	5.77	4.26
PBR	0.34	0.38	0.31	0.29
EV/EBITDA	4.95	4.43	4.12	3.70
ROE	7.10	7.71	5.56	7.14
BPS	17,905	19,707	20,627	21,946
DPS	130	200	200	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7월 30일 | 기업분석

넥센타이어 (002350)

일회성을 걷어내면 보인다. 하반기 실적 모멘텀 회복

평가-원가 Spread가 개선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회복될 것

넥센타이어에 대한 투자 의견 BUY와 목표주가 10,500원을 유지한다. 2분기 실적은 기대를 하회했지만, 미국 반덤핑 관세의 일회성 소급분을 제외하면 기대치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글로벌 RE 수요가 둔화되었고,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3분기까지 평가-원가 Spread가 축소되었지만, 관련 우려는 P/E 5배대, P/B 0.3배대의 낮은 Valuation(일회성 제거 기준)을 통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 평가-원가 Spread는 유럽 평가 인상과 믹스 개선, 그리고 원가 하락 등으로 4분기 혹은 내년부터 다시 확대될 것이고, 물량은 유럽 OE 증가 및 미국 월마트형 고인치 타이어의 RE 확대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실적 모멘텀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것이다.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때이다.

2Q26 Review: 영업이익률 3.9% 기록

넥센타이어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26% 하회했지만, 일회성 비용을 걷어내면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매출액/영업이익은 +11%/-20% (YoY) 변동한 8,913억원/343억원(영업이익률 3.9%, -1.4%p (YoY))이었다. 매출액 증가에는 물량(+3.3%)/평가(-0.6%)/환율(+8.0%) 등이 기여했고,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2% 중반의 외형 성장인 것이다. 고인치 비중은 +3.8%p (YoY), -1.8%p (QoQ) 변동한 38.8%였다. 지역별 매출액은 한국/북미/유럽/기타에서 +20%/-9%/+21%/+6% (YoY) 변동했다. 한국은 RE 믹스 개선과 렌탈 부문 성장 등에 힘입어 증가했고, 유럽은 유럽 완성차형 OE 공급 증가와 RE 판매 시장 다변화, 그리고 체코 2공장 증설 효과 등으로 증가했다. 기타 시장에서는 BYD 등에 대한 신규 공급으로 성장했다. 반면, 북미는 시장수요 감소와 거래선 조정 등의 여파로 감소했다. 매출원가율이 -0.9%p (YoY), +1.8%p (QoQ) 변동한 72.4%였고, 판관비율은 +2.3%p (YoY), +0.8%p (QoQ) 변동한 23.7%를 기록했다. 결과로 영업이익률은 1.4%p (YoY), 2.6%p (QoQ) 하락한 3.9%였다.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동 분쟁 이후 재료비/운반비가 상승했고, 미국 반덤핑 관세를 상승에 따른 일회성 관세(140억원)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기준의 영업이익률은 5.4%였을 것이다. 한편, 순이익이 2억원에 불과했던 것은 일회성 관세와 함께 일회성 법인세(237억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실적발표의 내용: 투입원가는 3분기 상승 후 4분기 상승폭 축소 및 하락 예상 중

넥센타이어는 상반기 원재료 Spot 가격 상승에 후행하여 투입원가가 3분기 약 5% (QoQ) 상승하겠지만, 4분기 이후로는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넥센타이어의 중국 공장에 받은 관세 비용은 2026년 60억원, 2027년 180억원 정도로 예상 중이다. 유럽 판매 중 중국 공장 생산비중을 15%에서 4%로 선제 축소했고, 중국 공장은 중국 내수 및 제 3국 수출 물량 중심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6월 5%의 평가 인상을 단행했고, 실질 효과는 2~3%로 예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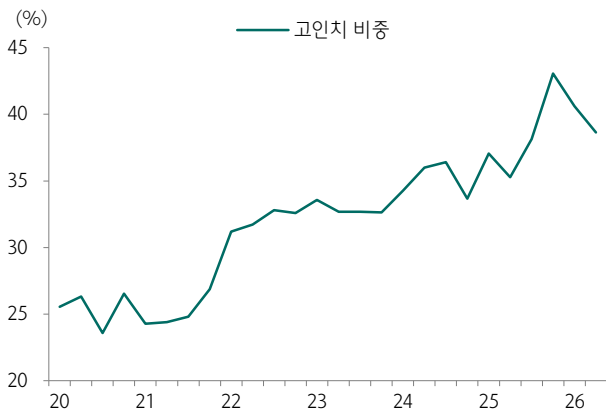
도표 1. 넥센타이어의 분기실적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P	3Q26F	4Q26F	2023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71	805	781	833	838	891	864	819	2,702	2,848	3,190	3,413	3,574
한국	115	125	140	238	143	150	157	164	454	463	616	612	631
북미	181	195	177	152	191	178	182	157	722	683	706	708	737
유럽	317	338	321	334	375	407	375	378	1,005	1,135	1,309	1,535	1,628
기타	158	147	143	109	130	157	150	120	522	568	559	557	579
매출원가	570	590	558	600	592	645	626	582	1,962	2,055	2,317	2,446	2,565
매출원가율	73.9%	73.3%	71.4%	72.0%	70.6%	72.4%	72.5%	71.1%	72.6%	72.2%	72.6%	71.7%	71.8%
운반비	74	74	72	71	68	93	86	78	235	305	291	326	322
운반비율	9.5%	9.2%	9.3%	8.6%	8.2%	10.4%	10.0%	9.5%	8.7%	10.7%	9.1%	9.6%	9.0%
판매비	161	172	177	193	192	212	189	194	552	621	703	787	809
판매비율	20.9%	21.4%	22.6%	23.2%	22.9%	23.7%	21.9%	23.7%	20.4%	21.8%	22.0%	23.1%	22.6%
영업이익	41	43	46	40	54	34	49	42	187	172	170	180	199
영업이익률	5.3%	5.3%	6.0%	4.9%	6.5%	3.9%	5.6%	5.2%	6.9%	6.0%	5.3%	5.3%	5.6%
세전이익	48	28	71	52	80	28	40	32	150	170	198	180	210
세전이익률	6.2%	3.5%	9.0%	6.3%	9.5%	3.1%	4.6%	3.9%	5.5%	6.0%	6.2%	5.3%	5.9%
순이익	40	19	55	37	62	0	30	24	103	127	151	117	158
순이익률	5.2%	2.4%	7.0%	4.5%	7.4%	0.0%	3.5%	3.0%	3.8%	4.4%	4.7%	3.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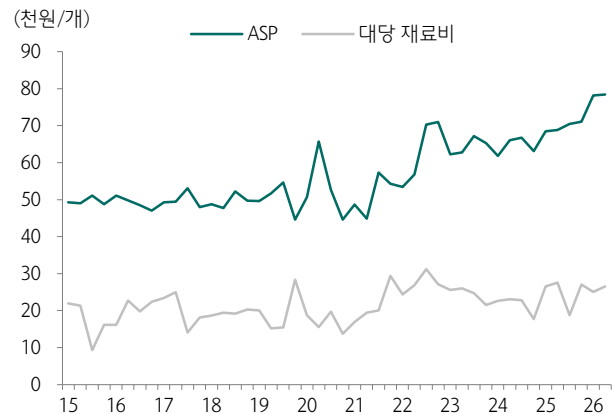
주: 2025년 4분기에 한국 매출액에는 일회성으로 렌탈 회계 변경 소급분 80십억원 포함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2. 넥센타이어의 고인치 타이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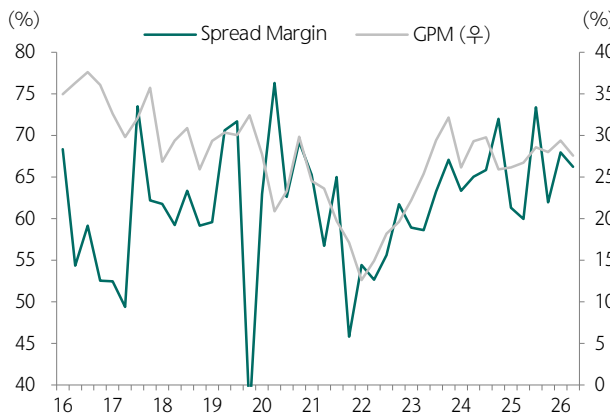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3. 넥센타이어의 ASP 및 재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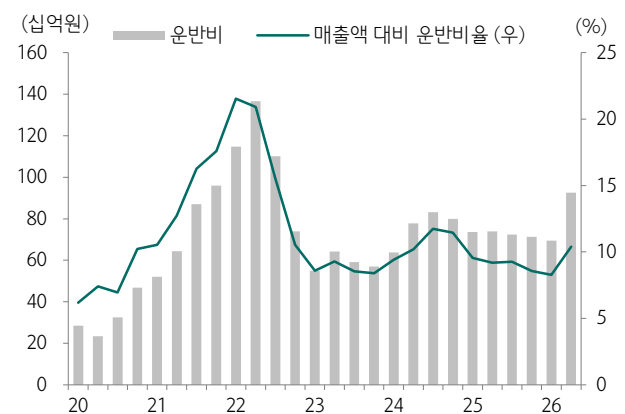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계산

도표 4. 넥센타이어 매출총이익률과 판가-원가 Spread Margin 비교



주: Spread Margin은 판가-원가 Spread와 판가를 비교하여 하나증권 계산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도표 5. 넥센타이어의 매출액 대비 운반비 비율 추이



자료: 넥센타이어, 하나증권

넥센타이어 2Q26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1. 실적

[2분기 손익 요약]

- 매출액: 8,913억원(+10.8%). 유럽/한국 중심 성장
- RE 비중 38.8%(+3.6%p)
- 매출원가율: 72.4%. 중등 리스크발 원재료가 상승 시차반영, 미국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 (8.02%, 예비판정 대비 상승)에 따른 일회성 비용 약 140억원 반영
- 운반비: 매출대비 10.4%. 해상/내륙 운임 상승으로 전년 및 전분기 대비 증가
- 영업이익: 343억원(-19.5%), 영업이익률 3.9%(-1.4%p)

[매출 증감 요인]

- 물량: +3.3% (YoY), 환율: +8.0%, 판가(ASP): -0.6%

[지역별 현황]

유럽

- 매출 4,072억원(사상 첫 4천억원 돌파)
- OE: 완성차 판매둔화에도 기존 및 신규 공급차종 확대로 시장 대비 높은 성장
- RE는 시장 역성장 국면에도 영국/튀르키예 등 다변화로 두자릿수 성장
- 6월부터 약 5% 판가 인상 시행, ASP 실질 반영 효과는 약 3% 수준 예상
- 하반기 재고 정상화 및 윈터/올시즌 타이어 성수기 진입으로 믹스 개선 기대

북미

- 매출 1,780억원
- OE: 기아/스텔란티스 주요 차종 판매호조로 성장세
- RE: 수요둔화/유통채널 재편으로 부진
- 홈세일/리테일 채널 다변화 추진
- 월마트 채널 고인치 제품 공급 확대로 하반기 ASP 및 믹스 개선 기대

한국

- 매출 1,495억원
- EV 및 SUV 판매 확대로 OE와 RE 모두 안정적 성장
- 렌탈부문 +8%

기타

- 매출 1,565억원
- 현대기아 중국 공장 및 중국/일본 완성차 업체 공급 확대로 견조한 성장
- BYD 공급 개시로 전동화 시장 입지 강화
- RE: 중등 물류 정상화로 회복세, 아태/중남미 거래선 다변화로 신규수주 확대

[영업외손익]

- 금융자산평가손실 약 30억원, 외화환산손실 약 19억원 등 총 약 49억원 손실
- 유럽법인 이연법인세 관련 약 237억원 추가 법인세비용 반영
-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에 따른 회계적 비용, 현금 유출 수반 아님

[주요 경영현황]

- 2분기 중 BYD EV차종, 현대 스타리아 EV 신규 OE 공급 개시
- 아우디 A6/BMW i3 등 프리미엄 브랜드 및 현대 신형 그랜저 공급 개시로 OE 매출 기반 강화
- EU 7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부과, 당사 중국 생산 일부 물량 24.4% 적용
- 직접 영향 제한적 판단: 선제적 생산지 재배치로 유럽 판매 중 중국 공장 생산비중을 25년 15% → 26년 약 4%로 축소
- 최고 45.3% 반덤핑 관세로 중국산 저가 물량 유입 감소 시 유럽 생산기지 보유업체 중심 시장환경 개선 기대
- 중국 공장은 역할 재조정: 중국 내수판매 및 제3국 수출 중심으로 활용도 제고, 중국 현대차 신규 공급 개시, BYD/립모터/GWM 등 중국 브랜드와 협력 강화, 현지 유통사와 협업으로 판매 네트워크 강화

[원재료/물류 시장동향]

- 2분기 중등 지정학 리스크로 원유/원재료 가격 변동성 확대
- 시차를 두고 하반기 원가에 일부 반영 예상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는 높은 수준 유지, 지정학 리스크에 운송비 부담 증가
- 하반기: 중등 정세에 따른 원재료/운임 변동성 지속 전망
- 거래처 다변화/적정재고 운영으로 영향 최소화 계획

2. Q&A

문) 하반기 판가 및 원재료 스프레드 전망은?

답) 천연고무/합성수지 +20% 상승. 또한 해상 운임은 장기 계약 기반에서도 운임과 유가 상승에 따라 추가 운임을 부과하는 구조. 휴전 협상 이후 상승폭 축소했으나 7월 이후 비용 변동성 커짐. 투입 단가 소폭 상승, 상반기 상승한 구매 단가는 시차 두고 3분기에 반영될 것

문) 2분기까지 YoY 대비 원재료 부담 낮아져서 손익 긍정적이지만, QoQ로는 상승. 하반기 재료비 부담은 어느정도일지?

답) 3분기는 2분기 대비 5% 정도 제조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 중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된다면 천연고무 약세/합성고무 공급 과잉 기대할 수 있음. 4분기부터 재료비 하락세 기대

문) 유럽 연간/분기별 관세 금액 규모는?

답) EU 관세 효과는 연간 180억 정도. 26년은 60억원 정도 예상

문) 금융자산평가손실의 내용 및 규모는?

답) 금융자산평가손실 30억원, 외화환산손실 15억원 발생. 일회성 비용 140억원. 6월에 일시 반영

문) 중국 공장 생산능력이 작년 4분기부터 척도 기준 약 10% 감소로 나타나는데, 유럽 관세 대응을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는지?

답) 생산능력 수치는 일 생산평균수량×생산가능일수로 산출되는데, 중국 내 생산물량 일부를 양산/창녕 등 국내로 이전하며 일 생산평균수량이 줄어 수치상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

문) 중국 공장 생산능력 축소를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 중국 공장은 유럽향 중국산 물량 축소와 함께 역할 재조정 중. 중국 내수/제3국 수출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현대차 중국 전략형 전기차향 신규 공급 개시, BYD/립모터/GWM 등 중국 브랜드와 협력 강화, 현지 유통사와 협업을 판매 네트워크 강화, 국내 OEM 원가절감 요구 대응책으로도 활용 계획

문) 2분기 기준, 판가와 판매량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답) 연결 매출 기준. 매출 +10.8%, 물량 3.3%, 환율 효과 8%, 판가 -0.6%

문) 유럽 6월부터 판가 인상 5%, 인센티브/리베이트 감안하면 5% 전부 인상은 어렵지 않을까? 실제 ASP에 미치는 인상 효과는?

답) 2~3% 정도일 것

문) 미국 반덤핑 관세 일회성 비용이 정확히 어느 기간 수출분에 대해 몇 % 부과된 것인지, 향후에도 이런 일회성 비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답) 대상 기간은 23년 7월~24년 6월(3기). 예비판정 5.57% → 최종판정 8.02%로 2.45%p 상승, 이에 따라 약 140억원을 6월에 일시 반영. 관세율 상승 원인은 이전까지 인정됐던 한국 내수 유통물량(엔드유저향 직접 판매 오토)을 이번 3기부터 미 관세청이 부인. 이번 판정부터 유통채널 구분 없이 내수 판매 전체를 덤핑마진 산정에 포함시켰기 때문

문) 재료비율이 2분기 어느 정도 수준인지? 3분기 어느 정도로 높아질지?

답) 2분기 재료비율 33.8%. 3분기에는 제조단가가 5% 정도 인상하는 효과

문) 대부분 국가의 운행 중인 차량 수는 늘었을 텐데, 왜 RE 타이어 전체적인 수요가 성장하지 않는지?

답) YTD 기준으로는 0%로 보이나, 2분기 기준으로는 1% 정도 성장. 유럽 반덤핑 관세 앞두고 시장 재고가 감소한 영향으로 생각

추정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847.9	3,189.6	3,412.6	3,574.0	3,696.0
매출원가	2,055.0	2,316.5	2,445.6	2,565.2	2,638.5
매출총이익	792.9	873.1	967.0	1,008.8	1,057.5
판매비	620.8	702.8	787.3	809.3	839.6
영업이익	172.1	170.3	179.7	199.5	217.9
금융손익	(15.8)	(22.0)	(14.7)	(3.9)	6.7
중속/관계기업손익	0.0	0.0	0.0	0.0	0.0
기타영업외손익	13.5	50.0	14.8	14.0	20.3
세전이익	169.8	198.2	179.8	209.5	244.9
법인세	43.1	47.1	62.9	51.1	59.8
계속사업이익	126.7	151.2	116.9	158.4	185.1
중단사업이익	0.0	0.0	0.0	0.0	0.0
당기순이익	126.7	151.2	116.9	158.4	185.1
비배주주지분 순이익	0.4	0.3	0.3	0.4	0.4
지배주주순이익	126.4	150.8	116.6	158.1	184.7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77.6	201.0	116.8	158.2	184.9
NOPAT	128.5	129.9	116.8	150.8	164.7
EBITDA	407.4	469.0	431.1	451.9	471.2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5.41	12.00	6.99	4.73	3.41
NOPAT증가율	(0.23)	1.09	(10.08)	29.11	9.22
EBITDA증가율	6.26	15.12	(8.08)	4.82	4.27
영업이익증가율	(7.97)	(1.05)	5.52	11.02	9.22
(지배주주)순이익증가율	22.96	19.30	(22.68)	35.59	16.82
EPS증가율	22.90	19.37	(22.65)	35.45	16.88
수익성(%)					
매출총이익률	27.84	27.37	28.34	28.23	28.61
EBITDA이익률	14.31	14.70	12.63	12.64	12.75
영업이익률	6.04	5.34	5.27	5.58	5.90
계속사업이익률	4.45	4.74	3.43	4.43	5.01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주당지표(원)					
EPS	1,213	1,448	1,120	1,517	1,773
BPS	17,905	19,707	20,627	21,946	23,520
CFPS	5,128	5,613	4,322	4,526	4,718
EBITDAPS	3,911	4,502	4,139	4,338	4,523
SPS	27,340	30,620	32,760	34,310	35,481
DPS	130	200	200	200	200
주기지표(배)					
PER	4.95	5.20	5.77	4.26	3.64
PBR	0.34	0.38	0.31	0.29	0.27
PCFR	1.17	1.34	1.49	1.43	1.37
EV/EBITDA	4.95	4.43	4.12	3.70	3.26
PSR	0.22	0.25	0.20	0.19	0.18
재무비율(%)					
ROE	7.10	7.71	5.56	7.14	7.81
ROA	2.87	3.25	2.47	3.28	3.71
ROIC	4.08	4.07	3.72	4.75	5.14
부채비율	144.41	129.23	120.16	113.72	106.76
순부채비율	74.83	64.03	50.54	42.97	34.47
이자보상배율(배)	1.81	2.13	2.32	3.02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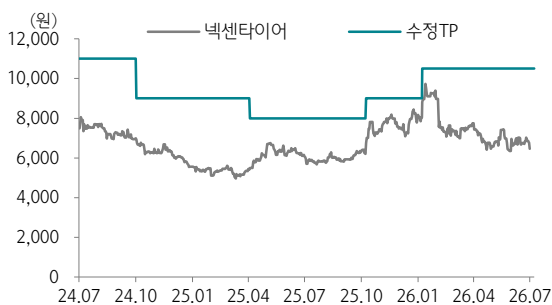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1,875.1	1,971.1	1,987.2	2,134.7	2,308.5
금융자산	287.1	302.1	394.9	467.5	584.6
현금성자산	137.4	159.6	248.4	318.1	433.1
매출채권	518.5	661.9	568.8	595.7	616.0
재고자산	894.0	865.9	853.1	893.5	924.0
기타유동자산	175.5	141.2	170.4	178.0	183.9
비유동자산	2,699.4	2,738.4	2,747.6	2,755.7	2,762.8
투자자산	60.7	61.7	62.4	62.9	63.2
금융자산	60.7	61.7	62.4	62.9	63.2
유형자산	2,423.1	2,430.8	2,437.7	2,443.8	2,449.2
무형자산	18.4	49.5	51.3	52.8	54.1
기타비유동자산	197.2	196.4	196.2	196.2	196.3
자산총계	4,574.5	4,709.5	4,734.8	4,890.5	5,071.3
유동부채	1,454.3	1,252.0	1,187.6	1,208.6	1,171.9
금융부채	806.8	576.9	473.2	463.3	403.2
매입채무	164.3	118.7	170.6	178.7	184.8
기타유동부채	483.2	556.4	543.8	566.6	583.9
비유동부채	1,248.6	1,403.0	1,396.6	1,393.6	1,446.7
금융부채	880.8	1,040.7	1,008.7	987.4	1,026.7
기타비유동부채	367.8	362.3	387.9	406.2	420.0
부채총계	2,702.9	2,655.1	2,584.2	2,602.2	2,618.6
지배주주지분	1,862.2	2,049.9	2,145.7	2,283.1	2,447.0
자본금	54.1	54.1	54.1	54.1	54.1
자본잉여금	67.4	67.4	67.4	67.4	67.4
자본조정	(3.0)	(3.0)	(3.0)	(3.0)	(3.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37.8	184.8	184.8	184.8	184.8
이익잉여금	1,605.9	1,746.5	1,842.4	1,979.8	2,143.7
비배주주지분	9.4	4.6	4.9	5.2	5.7
자본총계	1,871.6	2,054.5	2,150.6	2,288.3	2,452.7
순금융부채	1,400.5	1,315.5	1,087.0	983.2	845.3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 현금흐름	259.3	351.4	319.1	361.2	383.5
당기순이익	126.7	151.2	116.9	158.4	185.1
조정	305.4	276.8	205.6	209.8	203.6
감가상각비	235.3	298.7	251.4	252.4	253.3
외환거래손익	(24.8)	(28.2)	(51.3)	(48.3)	(49.7)
지분법손익	0.0	0.0	0.0	0.0	0.0
기타	94.9	6.3	5.5	5.7	(0.0)
영업활동 자산부채변동	(172.8)	(76.6)	(3.4)	(7.0)	(5.2)
투자활동 현금흐름	(175.6)	(156.1)	(213.4)	(215.1)	(212.9)
투자자산감소(증가)	79.0	(1.0)	(0.7)	(0.5)	(0.4)
자본증가(감소)	(202.7)	(221.1)	(250.0)	(250.0)	(250.0)
기타	(51.9)	66.0	37.3	35.4	37.5
재무활동 현금흐름	(190.2)	(166.0)	(156.4)	(51.9)	(41.5)
금융부채증가(감소)	(90.2)	(69.9)	(135.7)	(31.2)	(20.7)
자본증가(감소)	0.0	0.1	0.0	0.0	0.0
기타재무활동	(88.2)	(82.8)	(0.0)	0.0	(0.1)
배당지급	(11.8)	(13.4)	(20.7)	(20.7)	(20.7)
현금의 증감	(100.3)	22.3	88.8	69.7	115.0
Unlevered CFO	534.2	584.7	450.2	471.5	491.5
Free Cash Flow	54.2	128.7	69.1	111.2	133.5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넥센타이어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5	BUY	10,500		
25.11.6	BUY	9,000	-14.39%	-6.11%
25.5.2	BUY	8,000	-23.54%	-15.63%
24.10.30	BUY	9,000	-35.83%	-24.89%
23.10.30	BUY	11,000	-26.64%	-12.55%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7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선재)는 2026년 7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61%	1.39%	0.00%	100%

* 기준일: 2026년 07월 27일